



2021년 2월 3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2.2.(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2. 2.(화)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 산업환경과
담당과장	김현철 과장(044-203-4290) 김태우 과장(044-203-4240)	담당자	조은형 사무관(044-203-4292) 김창완 사무관(044-203-4248)

2050 탄소중립, 철강이 선도한다!

- ◇ 철강분야 탄소중립 산·학·연·관 협의체, **그린철강위원회** 출범
- ◇ 산업부,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등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 제시
- ◇ 6개 대표 철강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서명·발표**

-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비전’에 호응, 온실가스 최다 배출업종* 철강산업이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 '19년 철강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1.17억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16.7%, 산업부문의 30%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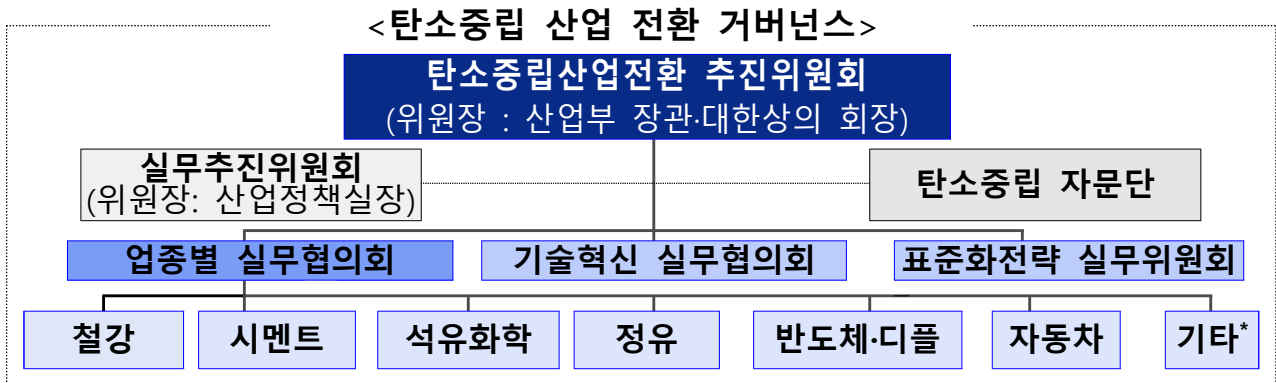
- 2.2(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가 개최됨
 - “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업계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학·연·관 협의체로, 한국철강협회 최정우 회장(現 포스코 회장)과 연세대학교 민동준 부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음

【 그린철강위원회 출범식·제1차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2.2(화) 15:00~16:30 /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 **참석** :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現 포스코 회장), 민동준 연세대 부총장, 김학동 포스코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등 6개 철강기업 CEO, 학계·전문가 등 15명 내외
- **주요내용** : ①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발표·서명식
 ② (주제발표 1) 철강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과제와 제언(민동준 교수)
 ③ (주제발표 2) 철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철강협회)
 ④ 對정부 정책건의 및 제언, 참석자 토론

□ (모두발언1) **성윤모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산업계가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① 산업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업종별, 기술혁신·표준화 등 분야별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통신

- ②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연내 수립
 - ③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를 지원하는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 특별법’ 제정
 - ④ 민간주도의 한계돌파형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예타 추진
 - ⑤ 기업의 신속한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및 인허가 일괄의제·규제특례 등 비용부담 완화 방안 적극 발굴
- (모두발언2) **최정우 철강협회장**은 철강 탄소중립은 철강업계가 과거에 극복해 왔던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철강재 수입 증가 등 여러 도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어려운 도전으로, 원료·공정·설비·마케팅 등 모든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함
- 앞으로 철강산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그린산업”으로 전환하여 한국이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 탄소중립의 도전을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계의 비상한 각오는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함

- (공동선언) 이어서 철강업계 대표기업 6개사가 “2050 탄소중립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여, 국내 산업계 최초로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
 - 공동선언문에는 ① 새로운 기술 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 감축 노력, ② 그린철강위원회를 통한 정보와 의견 공유 활성화, ③ 정부 정책과제 발굴 및 제언과 미래 지속가능 경쟁력 향상 추진, ④ 국제협력 강화 등 철강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 참석기업들은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철강업계는 물론 수요기업·협력사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 특히, 철강산업 탄소배출량의 70%를 차지하는 포스코는 작년 12월 11일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이날도 “그린철강” 이행을 위해 국내 대표 제조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
- (업계 건의) 철강업계는 탄소중립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린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공급, △부생가스 활용 수소사업 지원, △청정에너지 사용·자원순환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수소·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지원을 요청함
 - 아울러,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개발과 저탄소 설비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 △저탄소 신기술 개발시 업계 전반에 자유로이 공유 등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인 기술개발과 관련된 건의도 이어짐
 - 향후 산업부는 R&D 지원, 수소·그린전력 기반 확충, 국제 탄소규제 논의 대응 등 업계 건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계부처·유관 기관과 협의하며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임

- 【붙임】 1. “그린철강위원회” 행사개요 1부
 2.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조은형 사무관(☎ 044-203-42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1. 개요

- 일시/장소 : 2.2(화) 15:00~16:30 /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 18층
- 참석 : 산업부 장관, 철강협회장 외 업계 회장단, 전문가 등 15명 내외
- 내용 : ❶ 철강업계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서명 및 발표
 ❷ 철강산업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논의
 ❸ 자유토론, 대정부 건의사항 청취

2. 세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비고
1부 (공개)	15:00~15:05	(5')	모두 말씀	철강협회장
	15:05~15:10	(5')		산업부 장관
	15:10~15:30	(20')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발표 사진촬영	철강협회 부회장
	15:30~15:35	(5')	장내 정리	
2부 (비공개)	15:35~15:45	(10')	(발제) 철강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민동준 부총장
	15:45~15:50	(5')	(발제) 철강업계 탄소감축 로드맵	철강협회 손정근 본부장
	15:50~16:30	(40')	자유토론 및 건의	

4. 참석자

- 공동위원장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장, 민동준 연세대학교 부총장
- 철강업계 : 김학동 포스코 사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김연극 동국제강 사장, 이세철 KG동부제철 대표이사,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최진식 심팩 회장,
 이민철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 학계·전문가 : 서울대학교 이경우 교수, 산업기술대학교 강승진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오대균 기후대응이사,
 에너지미래포럼 이재훈 고문, 인하대학교 최재철 교수

철강업계 2050 탄소중립 선언

철강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이 인류 공동의 시대적 과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철강업계는 혁신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전환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개선’, ‘저탄소 원료 대체’ 및 ‘철스크랩 재활용 증대’ 등을 통한 순환경제 구축과 공정 효율화로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사회 대응을 위한 수소 저장·이송용 강제 개발’ 등 혁신기술을 개발, 확보하여 탄소중립 제철소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 철강업계는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린철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강산업의 친환경 산업화를 위한 공동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정보와 의견 공유를 활성화한다.
3. 철강업계는 정부의 R&D,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 생산구조 전환에 따른 지원 등을 바탕으로 미래 지속가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 하에 정책과제를 발굴 추진하며, 국가간 규제 수준의 균등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한다.
4. 철강업계는 글로벌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세계철강협회(WSA, World Steel Association) 및 각국 철강업계 등과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021년 2월 2일